



부안군산림조합 오세준 조합장, 도지사 표창 수상

부안군산림조합 오세준 조합장이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에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세준 조합장은 2009년 군의원 당시부터 장애인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회장 유정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201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장애인 정책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부안군산림조합장으로 2015년에 취임한 이후에도 매년 장애인을 위한 나눔 봉사를 해온 공로가 인정되어 2016년 김일환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데 이어 2023년 김관영 전 북도지사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앞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그늘진 곳을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치즈농협, 35보병사단 위문 방문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와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은 지난 18일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조합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제35보병사단 창설 88주년을 맞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마련됐으며, 임실치즈농협 피자트럭에서 갓 구워낸 피자 200판을 장병들에게 제공했다. 이진산 지부장은 "전북지역의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사명받는 농협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과 제35보병사단은 지난해 6월 상호협력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에 장학증서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0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소방 발전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의용소방대 자녀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 선발기준은 △순직대원의 자녀 △공상대원 및 자녀 △상훈법에 의한 상위 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이번 장학금이 자녀들의 학업진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안전한 대한민국 21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지난 20일 완주군 고산면(대표 구지연)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1호로 선정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지연 대표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으로서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CMS 정기후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후원을 약속해주신 구지연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오늘 현판식이 공단의 법무보호사업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아람 기자

"차별없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남원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개최

남원시는 20일, 남원 문화체육관에서 제43회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한마당은 사)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회장 전정희)가 주관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해와 화합의 장이 되었다. 본 행사는 8개 장애인단체회원 및 시설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서 준비한 신나는 문화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리고, 이어 기념식과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었던 제약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장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기자랑이 이어지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한편 김재연 자치행정국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차별 없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화속 의전원 동문, 전북대에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동문인 이화속 이화에스여성산부인과 의원 원장(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이 대학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1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이 원장이 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출연한 것은 대학 시절 대학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뤄졌다. 특히 간호학과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대 박사과정까지 오랜 시간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장학금과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받아 지금에 이르렀던 것을 생각하면 후배들에 대한 배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 능력과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받은 많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선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전북대 간호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후 전문의를 취득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도동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약 체결

남원시 도동동(동장 김윤자)은 20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초록나무협동조합(대표 우혜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해 동 맞출형복지집단은 1월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시각장애인 발굴,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로로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사례를 수집하고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며, 초록나무측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구 제작을 후원하게 되었다.



수혜를 받은 한 주민은 "쌍크대가 물도 새고 많이 벗겨져서 바꾸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났는데, 깔끔한 싱크대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윤자 동장은 초록나무협동조합에 감사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풍년농사 기원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와 서순창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송철순)은 19일 본격적인 농시절을 맞이하여 참두름 농장에서 풍년농사기원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영농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설목초 서순창농협조합장, 서순창농협 농가주부회원 등 20명이 참여하여 참두름 수확 및 선별작업 등 영농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순창 참두름은 순창군 지역의 농산물 소득 작물로써 맛과 향이 그리고 기후적응성이 매우 좋아 전국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이병희 지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촌영농지원 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거리 캠페인 진행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4월 19일 전주대학교 신청문을 시작으로 20일 전북대학교 신청문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피켓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넘어 다정다감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병은 관장은 "올바른 장애인식 확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아 기자



덕진소방서, 6명 구급대원 세이버 인증서 수여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적극적인 구급활동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6명의 구급대원에게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제도란 심정지 환자에게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에 기여한 사람과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높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인증제도이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달 동안 적극적으로 신속한 구급활동을 통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케 한 구급대원 5명,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 완소에 기여한 구급대원 1명이 각각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경아 기자



임실교육지원청-로컬JOB센터, 협약 체결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은 20일 임실로컬JOB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취업캠프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교육 가족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조옥선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구인·구직 홍보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 모범운전자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20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무주군 모범운전자회 박천수 회장은 "교향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미래세대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교향사랑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다"라며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모범운전자회는 스물쫌 교보인정 캠페인을 비롯해 112 허위신고 근절 홍보, 자살 우려자 발견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무주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산소방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홍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는 불철 화재 예방으로 대형 화재 저감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홍보에 한창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배전반과 분전반, 콘센트 등 소공간 화재 시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로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2020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추가됐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배지형·금속형·튜브형·로프형이 있으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좁은 공간(체적 0.36㎡ 미만) 배전반·분전반 안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많이 사용해 전기 화재를 예방하고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아 기자